프랑스 정부 불신임 투표(10.16일) 결과 및 평가

1 주요 내용

□ **(배경)** 프랑스 의회(하원)는 르코르뉘 총리 2기 **내각 구성**과 **정부재정 긴축**을 담은 **2026년 예산안** 내용에 반발하여 정부 **불신임 투표**를 실시

○ 프랑스 의회는 지난 9.8일 전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 의결 후 한 달여 만에 후임 총리*에 대한 신임 여부 투표를 재차 실시

* 바이루 총리 사퇴 후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국방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(9.9일).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구성 및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의 의견 충돌로 총리직을 사임(10.6일)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로 재임명(10.10일)

○ 프랑스에서는 9월 이후 정년 연장 등 **연금 개혁***과 재정건전성 회복**을 위한 **공공지출 감축** 및 **세수 증대** 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의회 내 야당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**정치적 혼란**이 **지속**

* 법정 퇴직 연령 2년 연장(62세 → 64세), 연금 100%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 1년 연장(42년 → 43년) 등

** 사회복지 지출 동결, 세출 구조조정 및 고소득 부유층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(GDP 대비)을 축소할 계획(2025년 -5.4%^{e} → 2026년 -4.7%^{e})

□ **(결과)** 주요 야당인 불복하는 프랑스(LFI, 극좌 성향) 및 국민연합(RN, 극우 성향) 등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**불신임안**이 통과되지 못하고 **부결***

* 총원 577명 중 LFI가 발의한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271명, RN이 발의한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144명이 각각 찬성하여 과반인 289명에 모두 미달

○ 이는 정부가 2027.5월 대선까지 **연금 개혁 조치 시행**을 **연기**하고 **의회 동의**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*하지 않겠다고 **약속**함으로써 사회당(온건 좌파), 공화당(온건 우파) 등 소수 야당을 설득한 결과

* 헌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의회 동의 없이 예산안 처리나 입법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회는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 가능

○ 이에 따라 르코르뉘 총리 내각은 2026년 예산안 처리 등 현안 **업무**를 **계속 수행**해나갈 예정

작성자: 박동민 과장

2 시장 반응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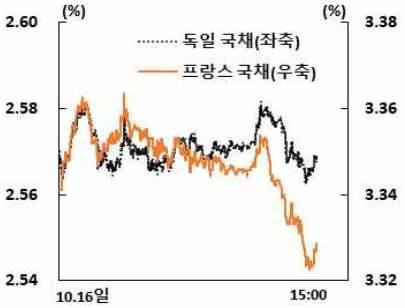
□ **(시장 반응)** 정부 불신임안이 당초 전망대로 부결됨에 따라 유로지역 **금융시장**에 미치는 **영향**은 **제한적**(10.16일 15시 기준)

○ 독일 및 프랑스 **국채금리**(10년물 기준)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소폭 **하락**(전일대비 각각 0.1bp 및 1.3bp 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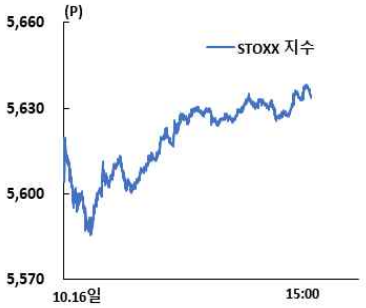
○ 유로지역 **주가**는 0.5% **상승**, **환율**(달러/유로)은 0.1% **상승**

프랑스 정부 불신임 투표(10.16일) 이후 유로지역 금융시장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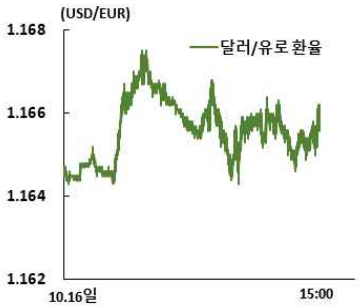
< 국채(10년물) 금리 >



< 주가지수(STOXX50) >



< 달러/유로 환율 >



자료: Bloomberg

□ **(평가)** 르코르뉘 **총리 내각**의 **생존**(survive)으로 정부 붕괴를 막고 의회의 **예산안 논의 토대**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, 불안정한 여당의 의회 내 기반을 고려할 때 **정치 상황**이 **재차 악화**될 **가능성** 상존

○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긴축 예산안에 대해 **야당**의 **반발**이 여전히 커 연말까지 진행될 **협상**의 **난항***이 예상되며, 향후 의회 상황에 따라서는 **예산안 처리**가 **무산****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

* 오늘 투표에서 르코르뉘 총리를 지지한 사회당은 1억 유로 이상 재산 보유가구에 대한 부유세(Zucman Tax)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립

** 이 경우 비상 절차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5년 예산을 연장하여 이월 사용하게 되며, 재정적자가 추가 확대될 전망(2025년 -5.4%^{e} → 2026년 -5.6 ~ 5.7%^{e})

○ 여당, 좌파 및 극우로 뚜렷하게 분열(deeply fragmented)된 의회에서 **여당**의 **정치적 기반**이 가장 **취약***해 근본적인 정치불안 해소가 어려운 구조

* 야당의 불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수 확보(총 577석 중 289석)가 필요하나 현재 여당 의석은 168석에 불과

— 이에 따라 야당의 정부 불신임 재시도, 조기 총선 및 마크롱 대통령 사임 요구가 반복되며 **정치적 불확실성**이 **재부각**될 가능성